

# 나옹하상토굴가



[해제]

<나옹화상토굴가>는 고려말의 선승으로 이름난 나옹혜근(懶翁惠勤, 1320~1376)이 지은 작품이다. 원 문에는 ‘나옹화상’이라 쓰여 있으나 이는 잘못 쓴 것이다. 필사자는 부산에 사는 조병대로 무술년(戊戌年)이라는 간지(干支)로 보아 1958년으로 추정한다. 두루마리 형태로 단아한 붓글씨로 줄글형태로 필사하였으며, 가독성이 좋아 읽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다. 4음보의 율격을 잘 지키고 있는 정격가사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작품은 강전섭이 소개한 필사본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한문 혼용으로 실려 있는 <나옹화상증도가>와 유사하다. 작품 서두에서 ‘일간모옥(一間茅屋)’이 다른 이본에서는 ‘일간토굴(一間土窟)’이라고 쓰고 있는 것처럼 낱말 간의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내용상의 의미는 대동소이하다고 하겠다. 이밖에 <나옹화상낙도가(懶翁和尚樂道歌)>, <나옹화상수도가(懶翁和尚修道歌)> 등 나옹화상의 이름으로 전승되는 <증도가(證道歌)>류의 한 이본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내용은 수행처인 토굴에서 오직 깨달음을 갈구하여 불법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선적 취향의 노래로 일관하고 있다.

[원문]

나옹화상토굴가

청산림 깊은골에 일간모옥 지어두고  
고송문을 반개하고 석정에 배회하니  
녹양춘 상월하에 총풍이 문뒤투러  
정림에 벽종하는 처처에 피었던데  
물색도 좋으니와 풍경이 더욱좋다  
그중에 문산일리 새상에 취기려가  
일편무위 진보향을 옥노중에 꽃아두고  
적절한 명창에 잠잠이 홀로앉아  
십년을 기한정코 일대사를 궁구하니  
전전에 모르던일 금일에야 아랏구려  
일단공명 심지월리 만고에 밝았는데  
무명장야 읍파랑에 길뚫찾아 다엿드니  
영축산 제불화상 처처에 모였거든  
손림구 조사가풍 엿이아니 차질손가  
청풍은 쓸쓸하고 명월은 잔잔하니  
어떠한 소식이며 산천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하니 어떠한 경계런고  
일이깨평 낮든중이 활게춧차 구족하다  
천봉만약 푸른송잎 일발중에 가득담고  
백호청 창기운 누비득 억계에 걸쳐시니  
새상욕심 이실손가 애옥에 담박하니  
인아사상 쓸대없다 벽성산이 높고높아  
이름도 없는중이 법개일상 낮토왔다

초초한 야월하에 원각산중 섯듯올나  
무명저 빗기불고 물향금 높이타니  
무위자성 진공낙이 그중에 가젯드라  
석호난 무성하고 송풍이 화답할제  
무창영 올라서서 불게촌 굽어보니  
각수담화 좋은꽃이 처처에 피엿드라  
부산시 서대문동 관음사  
조병대 금서  
戊戌年旧八月二十三日

[현대역]

나옹화상1) 토굴가2)  
청산림3) 깊은 골4)에 일간모옥5) 지어두고  
고송문6)을 반개7)하고 석경8)에 배회9)하니  
녹양10) 춘삼월11) 아래 춘풍12)이 문뚝 붙어  
정전13)에 백종화14)는 처처15)에 피었는데  
물색16)도 좋거니와 풍경17)이 더욱 좋다  
그중에 무슨 일이 세상에 최귀18)런가  
일편무위19) 진묘향20)을 옥로21) 중에 꽂아두고  
적적한22) 명창23)에 잠잠히24) 홀로 앉아  
십년을 기한25) 정코26) 일대사27)를 궁구28)하니  
전전에29) 모르던 일 금일30)에야 알았구려  
일단고명31) 심지월32)이 만고33)에 밝았는데  
무명장야34) 업파랑35)에 길못찾아 다녔으니  
영축산36) 제불화상37) 처처38)에 모였거든  
소림굴39) 조사가풍40) 어찌 아니 찾을손가  
청풍41)은 쓸쓸하고 명월42)은 잔잔하니43)  
어떠한 소식이며 산천44)은 묵묵하고45)  
녹수46)는 잔잔47)하니 어떠한 경계48)런고  
일리제평49) 낮춘 중에 활계50)조차 구족51)하다  
천봉만학52) 푸른 솔잎 일발중53)에 가득 담고  
백공천창54) 기운55) 누비56) 두 어깨에 걸쳤으니  
세상 욕심57) 있을손가 애욕58)에 담박59)하니  
인아사상60) 쓸데없다 법성산61)이 높고높아  
일물62)도 없는 중에 법계일상63) 나투었다64)  
교교65)한 야월하66)에 원각산67)중 선뜻68) 올라  
무공적69) 빗겨불고 물현금70) 높이타니  
무위자성71) 진공략72)이 그중에 갖추었더라  
석호73)는 무상하74)고 송풍75)이 화답76)할제  
무착령77) 올라서서 부지촌78) 굽어보니  
각수담화79) 좋은꽃이 처처에 피었더라  
부산시 서대문동 관음사  
조병대 근서80)  
무술년(戊戌年)81) 구팔월이십삼일(旧82)八月二十三日)

[각주]

- 1) 나옹화상(懶翁和尚) : 고려말의 고승(高僧)인 혜근(慧勤, 1320~1376)으로 속성 아(牙). 초명 원혜(元慧). 호 나옹(懶翁). 시호 선각(禪覺). 영해(寧海) 출생. 20세 때 친구의 죽음을 보고, 출가하여 공덕산 묘적암(妙寂庵)의 요연(了然)에게서 득도하고, 1348년(충목왕 4) 원나라에 가서 연경(燕京)의 고려 사찰인 법원사(法源寺)에서 인도 승려 지공(指空)의 가르침을 받았다. 고려가 자주국가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고자 노력할 때, 나옹은 중국에서 선의 기개를 떨치고 1358년(공민왕 7) 귀국하였다. 1361년 왕의 요청으로 신광사(神光寺)에 머물며 홍건적(紅巾賊)의 침입 때 사찰을 지켰는데, 그 뒤는 광명사(廣明寺)와 회암사(檜巖寺)에 머물렀다. 1371년 왕사(王師)가 되어 회암사에 주석하였으며, 1376년(우왕 2) 문수회(文殊會)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다투어 모여들어 대혼란이 일자, 조정에서 밀양(密陽) 영원사(瑩源寺)로 이주하도록 하였는데, 가는 도중 여주(驪州) 신록사(神勒寺)에서 입적했다.
- 2) 토굴가(土窟歌) : 토굴은 승려(僧侶)들의 수행처(修行處)를 뜻하며, 토굴에서 용맹정진(勇猛精進)하여 깨달음을 얻은 노래를 ‘토굴가’라고 한다.
- 3) 청산림(靑山林) : 푸른 산의 숲을 말함.
- 4) 골 : 골짜기.
- 5) 일간모옥(一間茅屋) : 한 칸에 불과한 띠나 이엉 등으로 지붕을 만든 초라한 집을 말함.
- 6) 고송문(古松門) : 오래된 소나무로 만든 문을 말함.
- 7) 반개(半開) : ‘반쯤 열어두고’라는 뜻.
- 8) 석경(石徑) : 돌이 많은 좁은 길을 말하며 석경(石逕)으로도 쓰임.
- 9) 배회(徘徊) :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님.
- 10) 녹양(綠楊) : 잎이 푸르게 우거진 버드나무를 말함.
- 11) 춘삼월(春三月) : 봄경치가 무르익은 음력 3월을 말함.
- 12) 춘풍(春風) : 봄철에 불어오는 바람을 뜻함.
- 13) 정전(庭前) : ‘마당 앞의 뜰’이라는 뜻.
- 14) 백종화(百種花) : 백종(百種)은 ‘백종’을 달리 이르는 말로 백종날이라고도 한다. 이 무렵에 과실과 소채(蔬菜)가 많이 나와 옛날에는 백 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 하여 유래된 명칭으로 이를 꽃으로 비유한 것이다.
- 15) 처처(處處) : ‘여기저기’, ‘곳곳에’라는 뜻.
- 16) 물색(物色) : 물건의 빛깔. 또는 어떤 기준으로 거기에 알맞은 사람이나 물건 또는 장소를 고르는 일을 말한다. 여기서는 전자의 뜻임.
- 17) 풍경(風景) : 산이나 들, 강, 바다 등의 자연을 뜻하는 ‘경치(景致)’와 같은 뜻.
- 18) 최귀(最貴) : ‘가장 귀하다’는 뜻임.
- 19) 일편무위(一片無爲) : 한 조각의 무위함을 뜻함.
- 20) 진묘향(眞妙香) : 참으로 묘한 향기라는 뜻. 다른 이본에서는 ‘진보향(珍寶香)’으로 쓰여 있는데, 이는 ‘진귀하고 보배로운 향기’라는 뜻이다.
- 21) 옥로(玉爐) : 옥으로 만든 향로(香爐)를 뜻함.
- 22) 적적(寂寂)한 : 조용하고 쓸쓸함. 또는 하는 일없이 심심한 상태.
- 23) 명창(明窓) : 별이 잘드는 창가 또는 창문.
- 24) 잠잠히 : 분위기가나 활동 등이 소란하지 않고 조용함. 또는 말없이 가만히 있는 상태.

- 25) 기(期)한 : 약속한.
- 26) 정코 : 정하고.
- 27) 일대사(一大事) : 중대한 일. 또는 아주 큰 일을 말하며, 여기서는 불교(佛敎)의 뜻으로 사람이 죽는 일과 아이를 낳는 일 또는 실상(實相)의 묘한 이치인 법화(法化)의 묘법(妙法)을 말한다.
- 28) 궁구(窮究) :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함.
- 29) 전전(前前)에 : 아주 오래전에. ‘지금보다 이전에’라는 뜻인 ‘종전(從前)에’와 비슷한 말.
- 30) 금일(今日) : 오늘.
- 31) 일단고명(一段孤明) : 한 조각 외로이 밝은 달. 여기서는 마음을 달에 비유한 것임.
- 32) 심지월(心地月) : 마음자리가 곧 달이라는 뜻. 마음과 달이 같음을 말함.
- 33) 만고(萬古) : 매우 먼 옛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 34) 무명장야(無明長夜) : 불교(佛敎) 용어로 <불교> 어두운 긴 밤이라는 뜻. 번뇌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광명을 보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5) 업파랑(業波浪) : 업이 끊임없이 일어남을 파도가 계속 치는 것과 같음을 비유한 말. 업(業)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36) 영축산(靈鷲山) : 불교용어로 고대 인도 마갈타국(摩竭陀國)의 왕사성 동북쪽에 있는 산. 석가모니 여래가 법화경과 무량수경을 강(講)하였다라는 곳이다. 비슷한 말로 영산(靈山), 취령(鷲嶺), 취산(鷲山)이 있음.
- 37) 제불화상(諸佛和尚) : 모든 부처를 말하며, 화상(和尚)은 수행을 많이 한 승려 또는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 38) 처처(處處) : 여기저기. 곳곳마다.
- 39) 소림굴(少林窟) : 불교용어로 선불교(禪佛敎)의 초조(初祖)인 달마대사(達磨大師)가 9년간 도를 닦아 깨달음을 얻은 곳을 말한다.
- 40) 조사가풍(祖師家風) : ‘조사’는 한 종파를 세워 그 종지(宗旨)를 펼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며, ‘가풍’ 불교의 어떤 종파에서 대대로 이어오는 풍습(風習)이나 범절(凡節)을 말한다.
- 41) 청풍(淸風) : 부드럽고 맑은 바람.
- 42) 명월(明月) : 밝은 달.
- 43) 잔잔하니 : 바람이나 물결 따위가 가라앉아 잠잠하거나 분위기가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뜻. 또는 태도 등이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
- 44) 산천(山川) : 산과 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자연’을 뜻함.
- 45) 묵묵(默默)하고 : 말없이 잠잠하고.
- 46) 녹수(綠水) : 푸른 물.
- 47) 잔잔(潺潺) : 흐르는 물소리가 가늘고 나지막함 또는 내리는 비가 가늘고 조용함을 뜻함.
- 48) 경계(境界) :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를 말하나 여기서는 불교용어로 인과(因果)의 이치에 따라 스스로 받는 과보(過報)를 말함.
- 49) 일리제평(一理齊平) : 하나의 이치가 모든 것에 두루 통한다는 뜻으로 화엄경(華嚴經)에 나온다.
- 50) 활계(活計) : 살아갈 계책 또는 살릴 계책을 뜻함.
- 51) 구족(具足) : 빠짐없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음.
- 52) 천봉만학(千峰萬壑) :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

- 53) 일발중(一鉢中) : 한 그릇 가운데. 발(鉢)은 승려들이 공양(供養)할 때 사용하는 발우그릇을 말하며, 한 발우에 보통 4개의 그릇이 포개어져 있음.
- 54) 백공천창(百孔千瘡) : 온통 구멍과 상처투성이라는 뜻으로, 온갖 폐단과 결함으로 엉망진창이 된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옷이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갈기갈기 찢어져 못 쓰게 된 상태를 이르는 말.
- 55) 기운 : 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또는 그대로 꿰매는 ‘깁다’는 뜻임.
- 56) 누비 : 두 겹의 천 사이에 솜을 넣고 줄이 죽죽지게 바늘로 꿰맨 옷을 말하며, 누비는 중들이 입고 다니는 법복인 납의(衲衣)에서 온 말이다. 원래는 사람들이 버린 낡은 헝겊들을 모아 기워 만든 옷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납(納)은 기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런 옷을 입은 중을 납승(衲僧) 또는 납사(衲師)라고 불렀다.
- 57) 욕심(慾心) :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하고자 하는 마음.
- 58) 애욕(愛慾) : 애정과 욕심을 아울러 이르는 말.
- 59) 담박(淡泊) :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함.
- 60) 인아사상(人我四相) : 인아(人我)를 비롯하여 네 가지 상을 말하며 금강경(金剛經)에 나온다. 사상(四相)은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명상(壽命相)을 말한다. 곧 사상은 허무하고 거짓된 것으로 이에 미혹되면 영원토록 어리석은 중생에 그치고, 이를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61) 법성산(法性山) : 법성(法性)은 우주 만물의 본체를 뜻하는 것으로, 곧 우주의 모든 현상이 이를 산으로 비유한 것이 법성산이다.
- 62) 일물(一物) : 한 물건.
- 63) 법계일상(法界一相) : 법계의 일원상(一圓相)으로 뜻하며, 이는 곧 진여(眞如)를 말함.
- 64) 나투었다 : ‘나타냈다’의 옛말.
- 65) 교교(皎皎) : 달이 맑고 밝거나 희고 깨끗함. 또는 매우 조용함.
- 66) 야월하(夜月下) : 밤을 흰히 밝히는 달 아래.
- 67) 원각산(圓覺山) : 부처의 원만한 깨달음을 뜻한 원각(圓覺)의 산으로 비유한 말.
- 68) 선뜻 : 동작이 빠르고 시원스러운 모양.
- 69) 무공적(無孔笛) : 구멍이 없는 피리라는 뜻으로 불교(佛敎)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말. 구멍 없이 피리를 불 수 없듯이 깨달음의 경지를 말이나 그림 또는 생각으로 표현해낼 수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 70) 몰현금(沒絃琴) : 줄이 없는 거문고라는 뜻으로 무공적(無孔笛)과 마찬가지로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말. 줄없이 거문고를 켤 수 없듯이 깨달음의 경지를 말이나 그림 또는 생각으로 표현해낼 수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불립문자(不立文字)와 같은 말.
- 71) 무위자성(無爲自性) : 불교용어로 무위는 인연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생멸(生滅)의 변화를 떠난 것을 말한다. 자성은 모든 법이 갖추고 있는 변하지 않는 본성(本性)을 말한다.
- 72) 진공락(眞空樂) :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누리는 즐거움.
- 73) 석호(石虎) : 돌호랑이.
- 74) 무상(舞翔) : 춤을 춤.
- 75) 송풍(松風) : 솔숲 사이를 스쳐부는 바람.

76) 화답(和答) : 시나 노래에 대답함.

77) 무착령(無着嶺) : 집착이 없는 경지를 고개마루에 비유한 말.

78) 부지촌(不知村) : 미혹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단계를 마을에 비유한 말.

79) 각수담화(覺樹曇華) : 각수는 원만한 깨달음의 나무라는 뜻의 원각수(圓覺樹)이며, 담화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나타날 때 꽃피운다는 상상의 꽃인 우담화(優曇華)를 말함.

80) 근서(謹書) : 경건한 마음으로 글씨를 씀.

81) 무술년 : 1958년으로 추정됨.

82) 구(旧) : 여기서는 음력을 뜻함.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